

순천시청 여자유도 창단 첫 우승

2021제주컵전국유도대회 단체전 결승서 고창군청 제압 개인전서도 은·동 1 획득

순천시청 유도팀이 창단 4년만에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순천시청 유도팀은 지난 15일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열린 2021제주컵전국유도대회 단체전(여자 일반부)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청은 8강에서 상대 팀 불참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뒤 준결승에서 충북도청을 상대로 4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결승에서 고창군청을 만나 김지정 절반승, 김혜미 지도승, 신지영이 한판승으로 3승을 올려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70kg급 김혜미와 김지정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78kg급 신지영이 2위에 올랐다. 김혜미는 준결승에서 박다운(성동구청)을 지도 3개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뒤 결승에서 유지영(경남도청)에 절반패를 당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체급 김지정도 준결승에서 유지영을 만나 절반을 내주고 동메달에 그쳤다. 신지영은 8강전과 준결승에서 배해빈(경남도청), 김지윤(동해시청)에게 연달아 지도로 승리를 따내며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승에서 엄



순천시청 유도팀 신지영(왼쪽부터), 김혜미, 김지정. <전남도체육회 제공>

다현(고창군청)에게 한판을 내주고 은메달에 그쳤다. 김양호 순천시청 감독(전남유도회 전무이사)은 "올해 마지막 대회를 창단 후 첫 단체전 우승으로 장식해 기쁘다"며 "동계훈련을 충실히 해 내낸 아시안 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전남유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한대는 같은 대회에서 남사대학부 단체전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도 '허씨 형제' 독무대

허웅·허훈,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나란히 1·2위

프로농구 원주 DB의 허웅(28)이 올스타 팬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새로 쓰고 개인 통산 세 번째 1위를 차지했다. 허웅은 KBL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1-2022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최종 결과에서 총 26만4376표 중 가장 많은 16만3850표를 받았다. 이상민 서울 삼성 감독이 전주 KCC에서 뛰던 2002-2003시즌에 받은 12만 354표를 넘어 일찌감치 역대 최다 득표 신기록을 세운 허웅은 결국 최종 집계에서도 1위를 지켰다. 2위는 허웅의 동생인 허훈(26·수원 kt)이었다. 허훈은 13만2표를 획득했다. 허훈도 이상민 감독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허웅, 허훈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이다. 허씨 형제는 2020-2021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 2위 자리를 나눠 가졌다. 지난 시즌에는 허훈이 1위, 허웅이 2위였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형제가 1, 2위에 오르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허웅 허훈

2015-2016시즌과 2016-2017시즌에 2년 연속 1위에 올랐던 허웅은 통산 세 번째 올스타 투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허웅은 이상민 감독(9회)에 이어 양동근 울산 현대 모비스 코치와 공동 2위에 올랐다. 2021-2022시즌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내년 1월 1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 장성우 8번째 장사 등극

문경왕중왕전 백두급 제패

장성우(24·영암군민속씨름단)가 '위더스계약 2021 민속씨름 문경왕중왕전'에서 백두급(140kg 이하) 정상에 올랐다. 장성우는 19일 경북 문경시 문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오정민(23·문경새재씨름단)을 3-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올해 2월 설날 대회 백두급 우승을 차지한 장성우는 시즌 2관왕을 달성하며 개인 통산 8번째 장사 타이틀(백두장사 6회·천하장사 2회)을 획득했다. 16강에서 김병찬(정읍시청)을 2-0으로 제압한 장성우는 각각 8강과 4강에서 만난 정경진(울주군청), 이재광(영월군청)을 상대로도 점수를 내주지 않고 결승에 안착했다. 오정민과의 결승에선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다. 장성우가 첫판과 두 번째 판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들배지기에 성공해 2-0을 만들자, 오정민이 세 번째 판 잡채기에 이어 네 번째 판 밀어치기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우승이 걸린 마지막 판에서 장성우가 다시 한번 들배지기로 오정민을 누르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19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1 민속씨름 문경왕중왕전' 백두장사에 등극한 장성우. /연합뉴스

조승아, 난설헌배 여자바둑 초대 챔피언

조승아(23) 4단이 2021 난설헌배 전국 여자바둑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조승아는 19일 강원도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프로부부 결승에서 정유진(15) 2단에게 19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여자랭킹 4위인 조승아는 신예 강자 정유진을 상대로 초반 좌편 전투에서 우세를 잡았다. 불리해진

정유진은 강력한 반격을 펼쳤으나 조승아의 깔끔한 수순에 빈틈을 찾지 못하자 돌을 던지고 말았다. 8강전에서 이만진 8단, 준결승에서는 박지연 5단을 각각 제압한 조승아는 2016년 입단 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조승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5단으로 특별 승단했다. 우승 직후 조승아는 "오늘 외할머니가 들어가신

후 첫 제사인데, 생전에 많이 응원해주신 외할머니가 하늘에서도 응원해주셔서 우승까지 한 것 같다"라고 살짝 눈물을 흘린 뒤 "결승까지 가는 게 목표여서 결승에서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둘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조선 중기 여류 문장가로 바둑 시를 여러 편 남긴 허난설헌의 고향 강릉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참가 선수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대국했다. 난설헌배 우승상금은 1500만원, 준우승상금은 700만원이다. /연합뉴스

광주 테니스클럽, 학교연계형 클럽 추가 선정

5년간 국비 4억 지원 받아

광주시체육회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빛고을 광주 테니스클럽'이 추가 선정돼 연간 8000만원씩 5년간 모두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시체육회는 2021년 학교연계형(한중목) 스포츠클럽 사업에 공모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빛고을 광주 테니스클럽은 염주테니스장에 거점시설을 두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육꿈나무 연계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 인제 조기발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체육회는 이번 추가 선정 클럽을 포함해 모두 11개 클럽(거점형 1개, 대도시형 6개, 중소도시형 1개, 학교연계형 3개)을 운영 지원하게 된다. 이는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클럽이라고 시체육회는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시즌 종합 1위

이탈리아 대회서 은메달 추가

'배추 보이' 이상호(26·하이원·사진)가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시즌 두 번째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상호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2021-2022 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다리오카비젤(스위스)에게 져 은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이상호는 이번 시즌 개막전 평행 대회전 금메달과 평행 회전 은메달에 이어 시즌 세 번째 메달, 두 번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66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 예선을 3위로 통과한 이상호는 16강전에서 아비드 아네르(오스트리아)를 4.92초 차로 따돌리고 8강에 안착했다. 이상호는 준준결승에서 다니엘레 바고자(이탈리아)를 0.33초 차로 제쳤고, 4강에서는 상대 선수 팀 마스트낙(슬로베니아)이 완주에 실패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 카비젤과는 접전을 벌였으나 이상호가 불과 0.06초 늦게 결승선을 통과하며 1, 2위가 정해졌다. 이상호는 이번 시즌 네 차례 스노보드 알파인 월드컵 가운데 세 번이나 결승에 올라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 랭킹 포인트 300점을 따내 시즌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는 210점의 슈테판 바우마이스터(독일)다. 이상호의 월드컵 통산 메달은 금메달 1개와 은



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로 늘었다.

이상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따낸 선수다. FIS 월드컵에서도 2017년 터키 대회 은메달로 한국인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됐고, 지난해 러시아 대회 금메달은 한국인 첫 FIS 월드컵 우승 기록이었다. '배추 보이'는 강원도 사북 출신인 이상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랭지 배추밭을 개량한 썰매장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붙은 별명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이상호는 2022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2회 연속 메달 획득 가능성도 불췌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엔란토: 마법의 세계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돈 룩업 라라와 크리스마스 요정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유체이탈자
9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유체이탈자
7관 씨네캐슬	연애 빠진 로맨스, 유체이탈자,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8관 씨네캐슬	엔란토: 마법의 세계, 돈 룩업 연애 빠진 로맨스, 유체이탈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21 ACC 송년음악회
일시 : 2021.12.24.(금)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524-5086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

즐거움 문화산책